

친환경농산물, 서울시민들의 마음·입맛 사로잡다

2억5000만원 매출 성과 올려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됐던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가 완판행렬을 낚으며 지난 29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들 간 2억5000만원의 매출성적을 올렸으며 준비해간 물량 20톤이 동이 나면서 29일 5톤을 추가로 올려 판매했다.

이번 행사에는 무주군 관내 50여개 농업인 단체 및 가공업체에서 사과와 오미자, 인삼, 청포도, 표고, 천마, 더덕, 벌꿀, 천마, 옥수수 등 1백여 개 품목을 선보였으며 된장, 한우, 대추, 잡곡 등은 조기에 완판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무주반딧불사과와 머무와인, 더덕, 도라지 등도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들은 "서울 사람들한테 우리 농산물 알리고나 오자라는 심정으로 따라 나섰는데 여기 저기서 이어진 완판 행렬에 신바람이 나더라"며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해주시고 또 직접 사가는 걸 보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보람도 느꼈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반딧불 농·특산물의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기본으로 현장 택배서비스를 비롯한 도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스 운영이 행사를 무사히,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며 "농가들은 물론, 재매걸연 부녀회장과 재경무주군민회 등 주민들의 지원과 협조도 큰 힘이였다"라고 전했다.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는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며 인지도를 높여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석중)이 주관한 것으로, 이들 동안 행사장은 서울광장 주변 회사원들과 서울 관광에 나선 외국인들, 그리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재경무주군민회 회원들이 함께 준비한 무주한우 스테이크 굽기 시연 및 시식회, 그리고 개막식 클래식 공연 등은 방문객들을 즐겁게 하며 입맛을 돋운 행사로 눈도장을 찍었다.

무주태권도화생시범단의 태권도시범 공연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국



기 태권도와 태권도성지 무주, 그리고 태권도원을 알리는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장 버스킹은 물론, 현장 구매고객과 사전 발급한 쿠폰 소지 고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반딧불 카페도 쌀쌀해진 날씨에 몸과 마음을 데울 수 있는 코너로 인기를 모았다.

이외 무풍사과단지 사과나무 체험 행사권과 머무와인, 사과 등 풍성한 경품행사가 진행돼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의 재미를 더했으며 태권도원을 비롯한 반딧불축제와 마로로 가는 축제 홍보, 사과나무 분양, 귀농·귀촌 상담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또 서울시청을 비롯한 인근 기업들의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춘 타임세일을 비롯해 즉석 착즙(과일) 서비스와 SNS 참여 이벤트(참여 시 선물 증정)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으며 29일 7시부터는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무주군 새마을회 회원들이 함께 출근길의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개별 포장한 반딧불사과 1000여개를 전하며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시청광장에서 종종 지자체 행사들이 열리는데 무주행사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내용면에서도 알찼던 것 같다"라며 "아침 출근 길에 받은 사과 한 알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월 2일과 3일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에서는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2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군민화합 퍼포먼스와 농업인 장기자랑, 농·특산물 판매 및 경매, 전시, 먹거리, 볼거리 행사 등이 진행된다. 마로로 가는 축제를 비롯한 귀농귀촌 홍보 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판촉행사에는 130여

사과·오미자·인삼·청포도
표고·천마·옥수수 등 선봬

서울광장 주변 회사원들
입소문 듣고 찾아온 시민들로 북적

광장 버스킹·반딧불 카페도
고객들에게 큰 인기 모아

무주군 예체문화관서
내달 2~3일 농업인의 날 기념
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



개의 부스가 마련될 예정으로, 관내 농업인들과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직접 판매를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한우의 날 소비촉진 및 시식회 및 나눔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한우협회 무주군지부(회장 한동진)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한우(불고기&구이) 무료시식회를 가지며 무주반딧불 한우의 우수성 및 소비촉진 행사를 가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관내·외에서 진행되는 농·특산물 판매 홍보행사가 농업인들의 사기와 농업소득을 함께 끌어 올리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서울광장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된 만큼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한마당축제도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와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